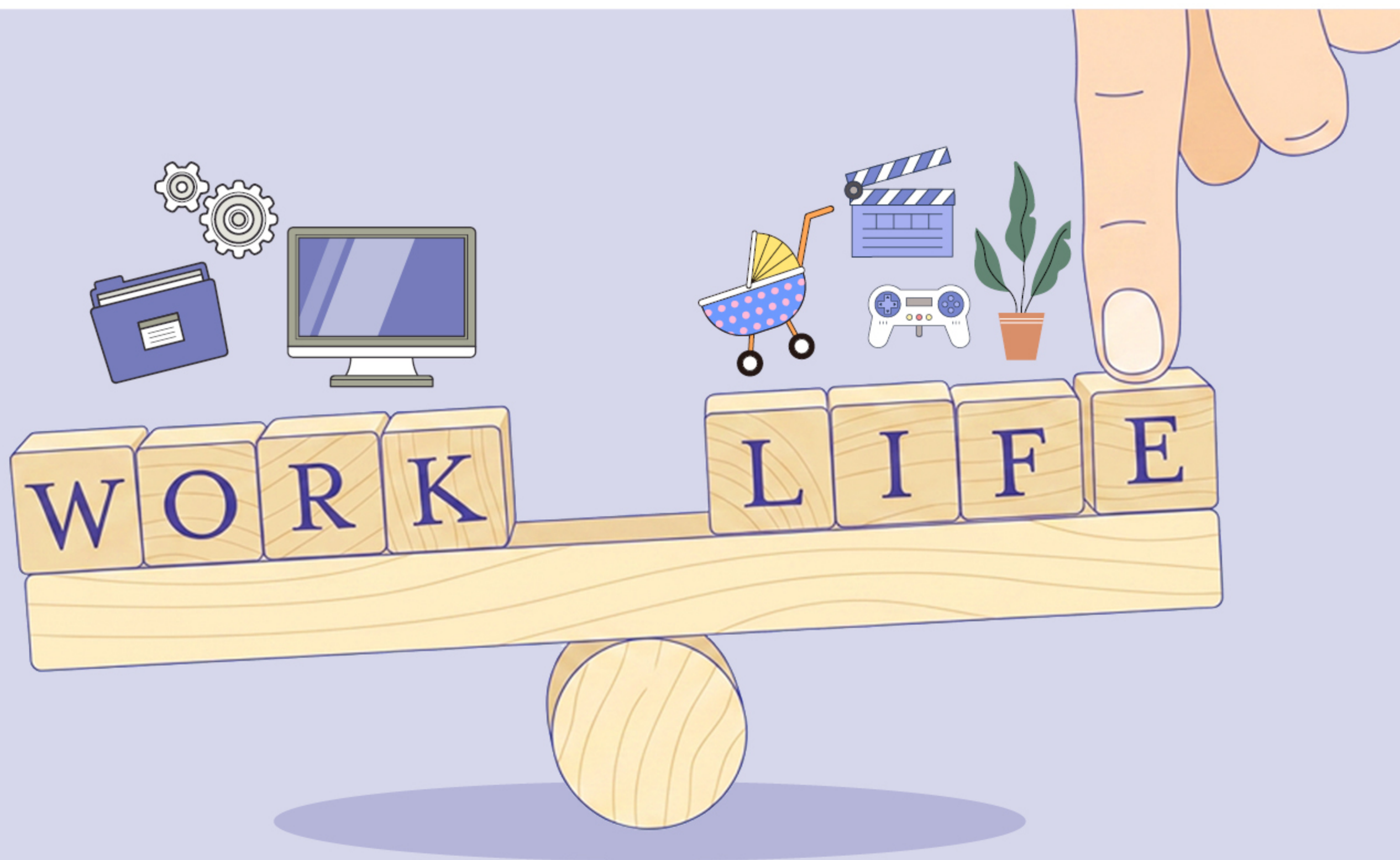




**일과 생활의 균형,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나요?**

일·가정양립,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오랜 구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가정양립은 **여성만의 과제로** 작동해왔습니다.

‘일’과 ‘가정’, 이 두 단어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가정양립을 넘어 **일·생활균형**으로



출처: 최정화(2025). 유럽연합의 가족정책: 일·생활 균형의 도입과 그 함의. 세계지역연구논총, 43(4), 93-116.

“돌봄은 우리의 몸과 자아, 환경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모든 활동이다.”

Tronto, J. (1993)

생활은 곧 돌봄 그 자체입니다.



일·생활균형은

일과 이 모든 돌봄 사이의 균형입니다.

출처: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이 돌봄은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내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주로 내가 돌봐요.

인천 여성

부모님 돌봄?
아내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인천 남성

같은 돌봄을 두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내가 하는 돌봄의 절반은 남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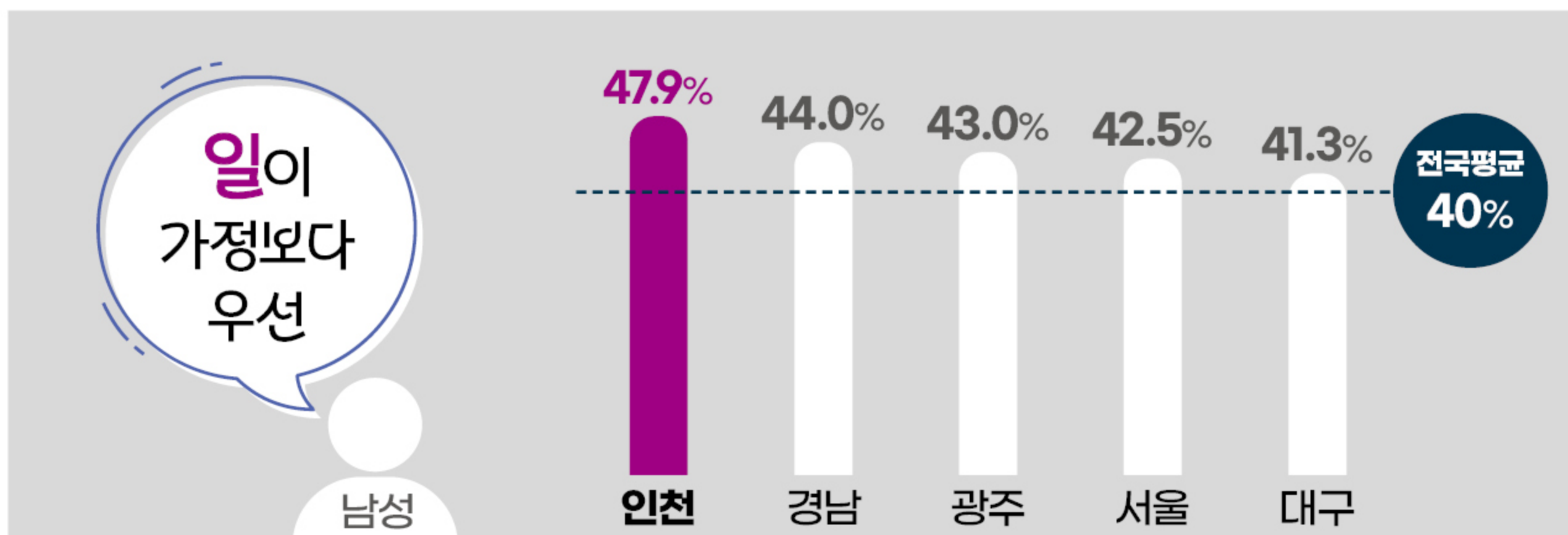
* “부모·친척을 주로 누가 돌보나(가사)”라는 물음에, 인천의 아내들은 “내가 한다” 36.4%, 남편들은 “아내가 한다” 18.5%로 답했음.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남(김영란 외, 2023).

여성에게 돌봄은 보이지 않는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김영란 외(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성에게도 돌봄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은 늘 부족**할까요?



그렇다고 지금이 좋은 걸까요?

인천 남성이 가장 원하는 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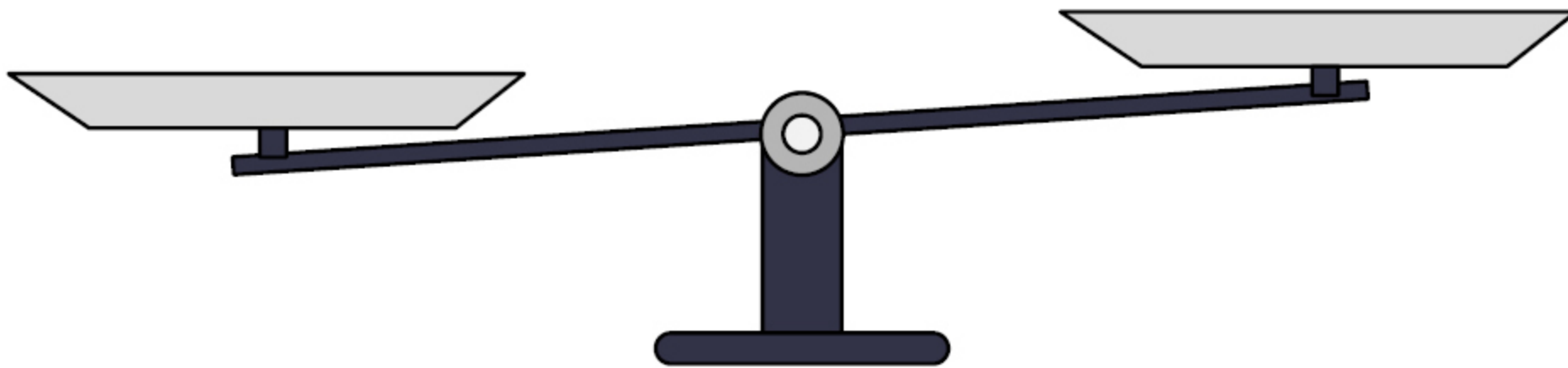
일은 놓지 못해도, 사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돌봄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듯,
일도 남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인천은 유독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도,
“**일과 삶의 균형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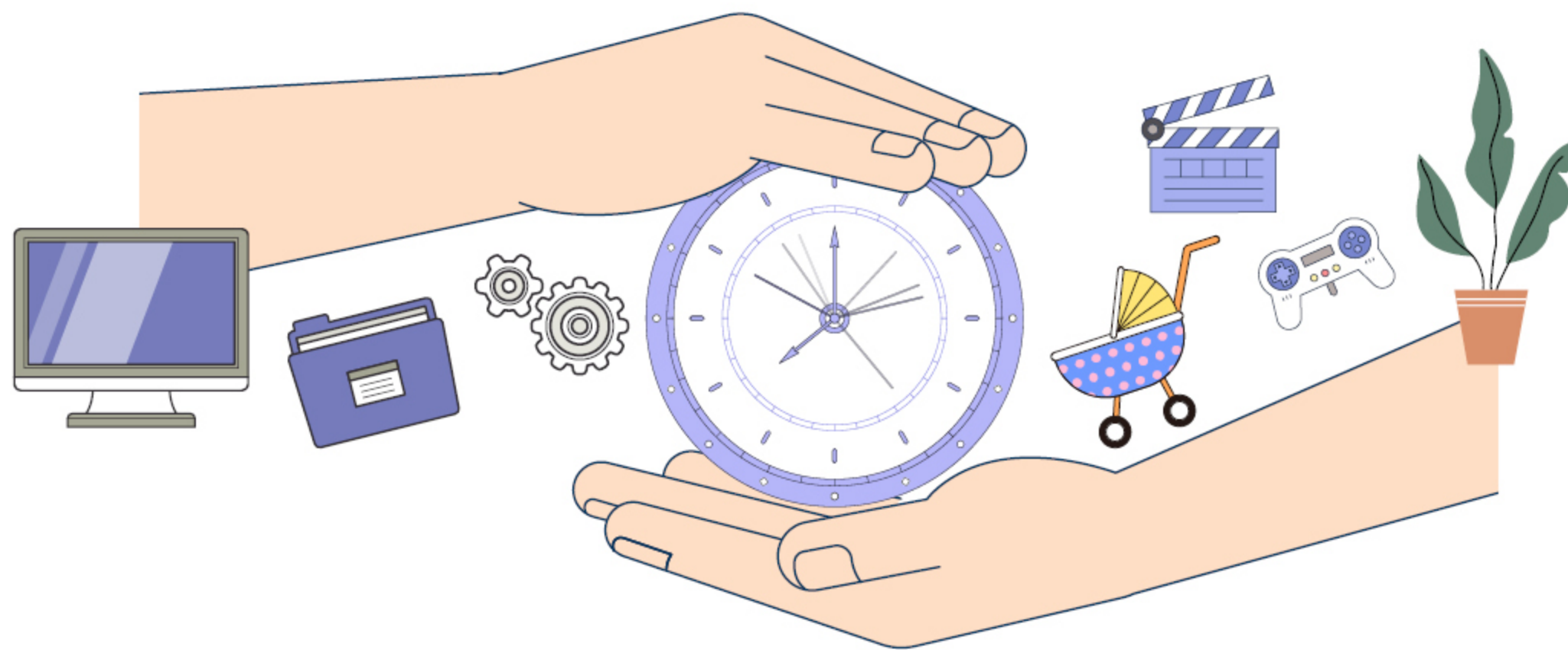
* 인천 시민의 일·가정양립 문화 만족도는 전국 5위의 상위권으로 나타남(국가데이터처, 2025)



이 만족은 정말 균형이 잡혀서일까요,
아니면 기울어진 삶에 익숙해진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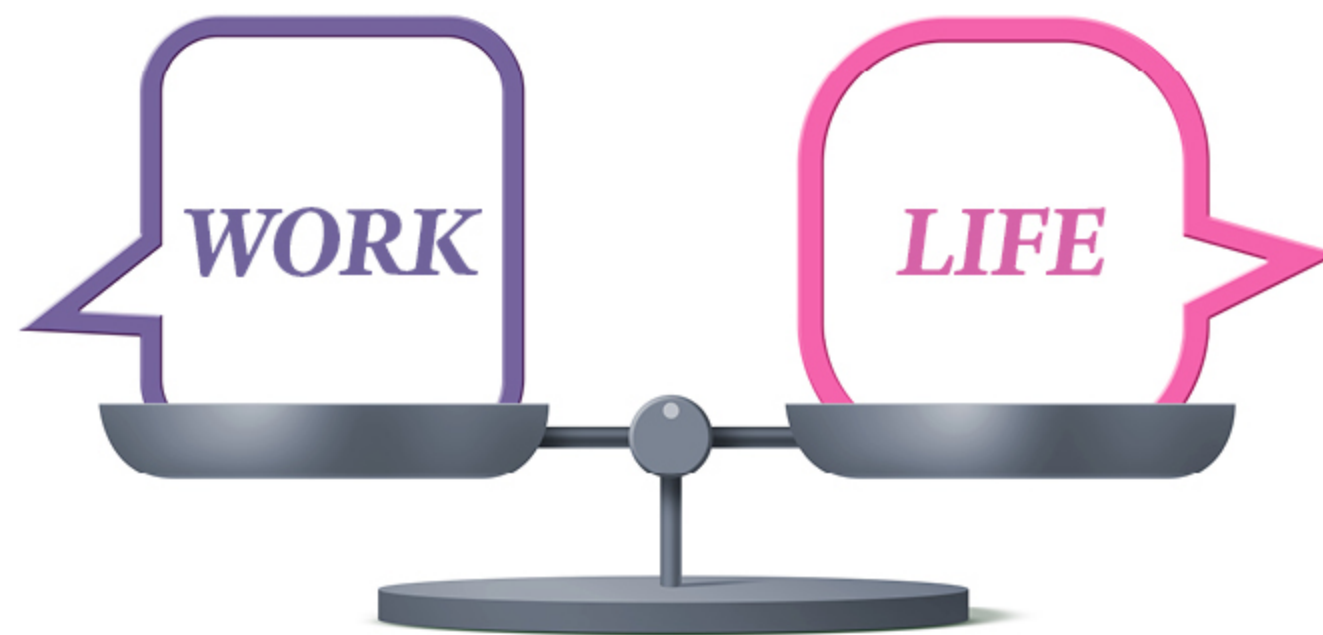
일·생활**균형**이란,
한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은 나누는 것입니다.
균형은 시간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균형은 누구나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평등한 일·생활균형
모두가 일하고 돌볼 수 있는 권리,**



이제 방법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인천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일·삶·쉼의 가치를 더하는 인천

모두 함께 누리는
워라벨 선도도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워라벨 문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성평등한 행복도시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산
가정친화근무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유연근무 컨설팅,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일·생활균형의
가치를 더하는 사회환경 조성
워라벨 페스타, 생애주기별 직장교육,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일·생활균형 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 구축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위원회,
민관산학 협의회,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직장문화**에서 **사회환경**까지,
개인의 일상에서 **도시 전체의 기반**까지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천 시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
그리고 **‘평등한 육아·가사’**입니다.

출처: 김영란 외(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연구」
박주은·임희정·최민정·서경화·신일래(2025)

연구보고서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ifwf.or.kr) → 정책연구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